

야구

4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위클리 프리뷰



SK 엄경엽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

우승의 척도 ‘50승 선착’ SK·두산 제대로 만났다

정규시즌 우승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50승 선착.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SK와 이번스와 두산 베어스는 이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50승 돌파가 가능한 상황에서 두 팀이 정면충돌한다.

17일까지 팀당 평균 71경기씩 치르며 반환점을 눈 앞에 뒀다. 5월까지 이어지던 극명한 ‘5강5약’ 차이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SK와 두산은 꾸준히 6할대 승률을 유지하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1위 SK는 47승1무23패, 2위 두산은 45승27패, 3게임 차로 나란히 50승 고지를 앞뒀다. 두산과 3위 LG 트윈스의 간격은 3.5경기다.

50승 선착은 곧 정규시즌 우승의 7부능선을 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 50승 선점 팀의 페넌트레이스 우승 확률은 무려 75.0%(28차례 중 21차례·전후기리그 및 양대리그 제외)에 달한다. 네 번 중 세 번은 정규시즌 왕좌에 올랐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도 60.7%(28차례 중 17차례)에 달한다. 75%의 확률까지 SK는 3승, 두산은 5승을 남겨뒀다. 이번주 6경기에서 50승 선착 팀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21~23일 인천에서 두 팀이 정면충돌한다. 자연히 SK의 수성 의지에 두산이 도전장을 내미는 분위기다. SK가 주중 광주 KIA 타이거즈와 3연전을 싸울 이 하지 않는 이상 주말 3연전이 50승 선착의 승부처다.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4승1패 두산의 우위. 두산은 5번의 맞대결에서 36득점으로 SK의 마운드를 맹폭했다.

우천 취소나 부상 등 변수가 없다면 SK는 헨리 소사~문승원~박종훈, 두산은 유희관~최원준~이동찬으로 주말 3연전 선발진을 꾸리게 된다. ‘외인 에이스’인 양헬 산체스(SK)나 조쉬 린드블럼(두산)은 서로를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그 정상급 선발진을 구축한 두 팀이기 때문에 매치업 면면은 부족함이 없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전반기 최고의 박매치가 벌써부터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야구기자들의 수다 ‘W베이스볼’ | LG, 올해는 ‘DTD 악몽’ 떨칠까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3위로 순항하는 LG 트윈스는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본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조롱 섞인 우려를 지우고 시즌 종료 시점까지 순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두산 베어스 공포증 극복과 공격력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전 2회 무사만루 상황에서 강판되는 선발 투수 임찬규(오른쪽·1번)을 동료들이 격려하고 있다.

장성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불안감이 최대의 적” “두산 포비아 극복해야”

스포츠동아 야구팀은 매주 월요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KBO리그의 여러 소식과 뒷이야기, 다양한 전망까지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대화입니다. 회의실 현장을 날 것 그대로 야구팬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17일 회의 참석자 : 이경호 차장, 정재우 전문기자, 강산, 장은상, 서다영, 최익래 기자

이경호(이하 이): LG 트윈스가 2위 두산 베어스를 가시권에서 추격 중입니다. 17일 기준 두산과는 3.5게임, 1위 SK 와이번스와는 6.5게임차입니다. 5위 NC 다이노스와는 4.5게임차로 갑자기 긴 연패에 빠지지 않는다면 상위권 성적이 기대되는 페이스입니다. 그러나 LG에는 ‘DTD’,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악몽이 있습니다. ‘Down Team is Down’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지만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LG는 올해 또 추락할까요? 아니면 상위권을 지켜 두산과 잠실에서 가을야구 명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요?

서다영(이하 서): 상승세에서 하필 또 지난 주말 두산을 만나서 루징 시리즈로 기세가 한풀 꺾였네요.

장은상(이하 장):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도 서울 라이벌 두산에 15패를 당한 부분이었죠.

이: LG의 두산 포비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TD’와 두산 포비아는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있죠. 단일리그가 다시 시작된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LG가 두산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시즌이 단 3번, 상대 전적에서 앞선 것도 3번 뿐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당했어.

강산(이하 강): 지난해 LG는 7월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24승39패로 무너졌는데 고비 때마다 두산을 만나 연패를 당했죠.

이: 지난해 후반이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운드 전력에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연패를 허용하지 않는 막강한 선발진도 큰 힘입니다.

서: 타일러 윌슨~케이시 켈리~차우찬을 고정하고 류제구 이우찬 임찬규가 4.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김태현, 임지섭, 배재준에 김영준, 손주영까지 선발진에서 기용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상승이 놀랍습니다. 선발투수에

게 휴가도 주는 여유가 생겼어요.

장: 신인 정우영의 활약도 눈부서요. SK에서 트레이드 된 문광은도 추격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펜 각 포지션 모두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익래(이하 최): 15일 LG 마운드의 연속 4사구 타이 기록은 충격이었습니만… 한 경기일 뿐이고, 결국 팀 평균자책점 상위권 팀의 안정감은 분명합니다. 15일에도 예년과 달리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재우(이하 정):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늘 발목을 잡고 있죠. 상대팀들에게도 일종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후반기만 되면 LG에 대해 자신

“지나해도 두산전 연패가 치명적 DTD는 학습효과…심리 요인 커 약한 타선·조셉·오지환 등 변수”

감을 갖고 달려들죠.

이: 분명 위험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이 무서운 게 ‘학습효과’는 상대 팀 뿐 아니라 ‘우리 팀’도 지배하죠. ‘또 추락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저기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정: 그게 ‘DTD’의 핵심이죠. LG 선수단을 감싸는 제일 큰 불안요소는 심리적 요인일 겁니다. 두산에 번번이 당하는 이유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이: LG 선수단이 꼭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LG가 류중일 감독을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팀 DNA의 이식이죠. 류 감독의 강점은 조용히 소리 없이 많은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장: 그래서 류 감독이 코칭스태프도 많이 바뀌었죠.

이: 몇 가지 약점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전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 등 디테일한 부분, 원순 선발에게 유독 약했던 점, 과감한 신인 기용 등 변화가 느껴집니다.

최: 변화의 핵심은 수비인 것 같아요. 마운드도 그렇고, 오지환을 주축으로 한 내야 수비도 그렇고요.

이: 멘도사 라인에 있는 오지환을 내야 수

비의 핵으로 신뢰하며 기용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모습도 선수단 전체에 큰 시너지효과를 주고 있고요.

정: 선수 한명을 딱 짚어서 언급하기는 미안하지만, 오지환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실 LG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입니다.

이: LG가 후반기 마운드 전력에 변수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유 역시 공격력입니다.

정: 팀 타율, 득점권 타율, 홈런 모두 9위입니다. 한화와 함께 팀 타격 하위권의 쌍두마차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마운드부터 달라 류중일표 팀 개조 아직은 성공적 SK·두산 견제 필요…LG 파이팅”

서: 마운드에서는 구원 평균자책점이 유일한 2점대(2.82)에 선발 평균자책점도 3.32(3위)로 아주 안정적인데 공격 뒷받침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토미 조셉이 가장 아쉽습니다. 박용택도 부상으로 공백이 길어지네요. 박용택이 빠진 라인업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지만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50안타 이상을 생산했던 타자가 사라진 셈이죠.

정: 조셉은 오히려 라인업에 짐이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박용택도 여러 딜레마가 따르죠.

이: 박용택은 전문 지명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측면에서 팀 공헌도가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부상 전에도 장타율이 0.264였어요. 돌아온다면 시즌 초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엔트리에 전문 지명타자가 있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주전 야수들의 로테이션 숨고르기 지명타자 출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최: 박용택이 빠진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고정 지명타자가 LG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몇 안 되는 고정 지명타자 윤영 팀이었던 LG는 최근 이형종, 채은성, 김현수 등을 돌리고 있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최: 그렇죠. 많은 사령탑들이 144경기 체제에서 고정 지명타자는 독약이라고 입을 모으니까요.

정: 조셉은 분명 장타력이 매력적이지만 다른 팀 외국인타자들과 비교하면 부상으로 인해 분명 반쪽이 그치고 있습니다.

서: 류 감독은 조셉에 대해 “홈런을 매일 쳤으면 좋겠는데, 가끔 한 번씩만 치고 만다”고 아쉬워해요. 타율 0.280에 9홈런. 4번타자로는 부족함이 커요

이: 혹시 교체 가능성은 있나요? 새 구약이 연봉 총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키움 히어로즈 제리 샌즈 같은 저비용 고효율 교체 외국인 타자 성공사례도 있잖아요. 차명석이라는 스마트한 단장이 있으니 과거와는 다른 과감한 선택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서: 일단 류중일 감독은 “조셉의 허리 디스크가 장기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정: 다른 타자들이 좀더 힘을 보태야죠. 지금 버리기는 애매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 종합하면 약한 공격력은 박용택 복귀를 제외하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후반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요소는 앞서 말한 두산 포비아입니다. 두산 전이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 지난해도 두산전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는 두산 상대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뒤처지네요.

정: 두산이 지난해 SK에 14.5게임차로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LG 덕이죠. 1승15패였으니까요. 딱 그만큼이잖아요.

서: 그래도 올 시즌엔 두산을 만나서 적어도 무참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 SK와 두산을 견제해줄 세력이 필요한데, 키움과 함께 LG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올해는 특히 순위 양극화가 극심한데, SK와 두산의 양강 구도까지 고착되면 리그 전체의 흥미가 반감될 테니까요. LG가 진짜 잘해줬으면 합니다.

이: 합리적인 단장, 2년차에 팀 개조에 성공하고 있는 감독. 그리고 막강한 마운드, 정우영이라는 신예 발굴. 이런 부분이 강점인데 약한 공격력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두산과의 승부도 중요하고요. LG가 두산이랑 가을잔치에서 만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스포츠부 야구팀